

바나나 나무 귀신

Hjh Nurzaimah Binti Hj MD Zaini

옛날 옛날 어느 한 평화로운 마을에 한 부지런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똥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습니다. 똥갈은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수원에는 바나나도 있고 쭈썸닥도 있고 낭까도 있고 두리안도 있었습니다. 똥갈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똥갈은 익은 바나나를 봤습니다. 다른 동물이 바나나를 먹을까 봐 바나나를 베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다발을 베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바나나 다발을 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똥갈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똥갈, 도와 주세요. 제 집은 너무 멀어요. 똥갈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똥갈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똥갈 집에 도착하자 여자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똥갈은 놀랐습니다. 똥갈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갔나 봐.”

그런데 밤에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똥갈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고 하셔서 집에 갈 수 없어요.”

똥갈은 처음에는 그 여자와 같이 살면 마을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도와 주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똥갈과 여자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똥갈에게 물었습니다.

“똥갈, 그 여자를 잘 알고 있나?”

똥갈은 여자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밤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해서 둘은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똥갈은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손에서 피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여자는 밤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똥갈이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여자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똥갈의 손을 보고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일찍 자라. 핀에 실을 묶어서 옆에 뒀라. 만약 아내가 자네 손의 피를 마시면 아내 옷에 핀을 꽂아라. 다음 날 아침에 그 실을 따라가 보라.”

밤이 되었습니다. 똥갈이 눕자 여자가 똥갈의 손에서 피를 마셨습니다. 똥갈은 아내 모르게 아내의 옷에 핀을 꽂았습니다. 똥갈 피를 마신 후 여자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똥갈은 실을 따라 가 봤습니다. 실이 바나나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똥갈은 바나나 나무를 베었습니다. 바나나 나무에서 비명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바나나 나무에서 피도 나왔습니다. 아내는 귀신이었습니다. 똥갈은 아내가 귀신인 것을 알고 모르는 여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